

아르누보 도자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rt Nouveau Ceramics

유 미 자(Rheu, Mi-ja)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가구. 제품디자인 전공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아르누보의 이론적 배경

- 2-1 아르누보의 개념과 역사
- 2-2 아르누보의 분류
 - 2-2-1 곡선적 아르누보
 - 2-2-2 직선적 아르누보

3. 아르누보 도자기의 조형적 분석

- 3-1 형태
- 3-2 색채
- 3-3 아르누보 소재
- 3-4 아르누보 도자기

4. 결론

참고문헌

(요약)

세계의 역사적인 문화재를 살펴보면 도자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광범위하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필수품을 초월하여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9세기 전후에 등장한 아르누보 스타일은 도자공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대에 와서도 복사되어 생산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의 table ware Design에 응용되어 개인의 고상한 개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으며 풍요로운 식탁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르누보 도자기의 가능성 즉, 조형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조형미를 표출시키는 동시에 현대 도자 디자인의 창의력 표현영역을 확대함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인은 문헌조사와 자료분석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작된 대표적인 아르누보 도자기를 1895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순으로 나열하였다.

(Abstract)

Taking a look at art history around the world reveals the presence of ceramics in a wide range of area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over the years, but especially notable is the fact that in the course of history, the craft of ceramics has become an aesthetic art form rather than serving the original purpose of providing daily objects of necessity.

The Art Nouveau movement had great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ceramics before and after 19th century, and its inherent style continues to be copied and produced to modern day. The Art Nouveau style can today be seen particularly in contemporary tableware designs reflecting its graceful motifs that are now richly presenting themselves on table settings.

This study looks at the possibilities of Art Nouveau in ceramics, namely by combining both traditional formative qualities and contemporary visual inspirations to seek new expressions of beauty. In order to document records and analyze formative developments of Art Nouveau, representative pieces have been chronologically presented to cover the period from 1895 to the present.

(Keyword) 아르누보 스타일을 응용한 도자기, 재구성

1. 서 론

도자기는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생활의 필수품으로 함께 존재해 왔고, 세계의 각 지역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현대에 와서 도자기는 생활에 사용되는 물건 이상의 것으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예술품으로서 광범위하게 인류의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토기에서 시작되었던 도자기는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형태와 장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1880-1910년에는 유럽에서 아르누보(Art Nouveau)라는 새로운 양식의 영향을 받았는데 각 나라마다 형태와 문양에 특유한 양식으로 표현되어 독특하고 새로운 장식미술로 나타났다.

영국의 건축사가 니콜라우스 페브스너는 '아르누보라고 부를 정도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아주 아르누보(새로운 양식)적이다. 이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반복하지 않은 비대칭적인 틀립과 활기차게 양식화되어 있다. 화염처럼 생동하는 형태라든가 좌우의 그림틀 속에 잘려져 양식화 되어있는 수평아리의 형태 등은 신미술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아르누보의 근원을 맥머도(Mackmurdo)가 1882년에 디자인 목판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인한 Wren's city churches(렌의 시교회들)라는 표지디자인의 본 연구는 아르누보 도자기를 선택 하였으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한가지 방법으로 아르누보 양식을 분석,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자 디자인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르누보 도자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그것이 지니는 특징을 조형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그 특징적 요소들을 현대 도자기에 어울리게 재구성함으로써 옛것의 재현이 아닌 현대적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있다. 특히 아르누보 도자기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곡선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생활용품의 가치를 넘어서 19세기 전후에 유럽에서 나타난 장식 미술의 한 경향으로 도자기에 나타난 아르누보에 대해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고, 이것을 분석하여 새로운 기반 위에 다양한 장식적 특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아르누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문헌조사 방법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박물관에 소장된 보존 유물의 문헌 자료를 통한 아르누보 도자기의 문양 및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아르누보 도자기의 개념 및 발달 배경, 역사, 종류 그리고 스타일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생활 필수품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살펴보고 조형적인 측면에서 아르누보 도자기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아르누보 도자기에 관한 문헌 자료에 나타난 사진을 정리, 분석하였다.

2. 아르누보의 이론적 배경

아르누보(Art Nouveau)의 뜻은 <신예술>이라는 의미로 1880년경부터 1910년에 걸쳐서 일어나, 역사적 양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미를 창조하려고 했던 범 유럽적 운동이었다. 아르누보라 이름은 1895년에 파리에 개점한 사무엘빙(Samuel Bing,1838-1919)의 '메종 빙 아르누보'(아르누보관)에서 유래되었다.2) 아르누보는 공예와 건축을 중심으로 폭 넓게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었으며 아르누보 작가들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그리 중요시되지 않았던 지극히 곡선적인, 생태학적 형태와 이와 대조되는 글라스 고우의 찰스, 레니 맥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와 요세프 호프만(Joseph Hoffmann)의 작품에서 예증된 강하고 생동감있는 직선형태가 있었다. 일찍이 1878년에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는 바르셀로나의 카사비상스(Casa Vincens)를 위해 그는 정교한 철제문을 디자인하였는데, 이것은 곡선형(Curvilinear)의 첫 실례일 것으로 생각되고 아르누보를 처음 개발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1878년에 시공된 이문은 오르타의 타셀(Tassel)주택 보다 4년, 그리고 맥머도의 '렌의 도시 교회들'(Wren's city churchus)을 위한 목판화 보다 3년이나 앞서 있다. 그의 건축과 작품에는 환상적이면서도 생태학적인 곡선이 특징적이다. 아르누보는 벨기에에서 확산되어 그 영향이 전 유럽에 미쳤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 1900년대에는 아르누보의 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Jugend Stil, 스페인에서는 아르테 호벤(Arte Joven), 이태리에서는 Stil Liberty, 영국과 아메리카에서는 Modern Style, 스웨덴에서도 '유겐트'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드라곤 양식'등으로 불려져 국제적인 양식운동으로 발전했다. 아르누보는 과거의 역사적 양식으로부터의 이탈을 목적으로하여 형태, 장식, 용도, 재질의 적합을 주장했던 것이나, 장식적인 경향이 너무 강해서 구조를 무시한 변화가 많은 장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는 부적당하다는 등 평이 좋지 않아 1900년을 정점으로 쇠퇴해갔다. 아르누보의 영향은 건축, 가구, 우리, 그래픽뿐만 아니라 도자기 방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특히 일본의 도자기는 만국박람회 등에도 출품되어 그 아름다움이 이해되고, 뜨거운 차와 함께 주목되어 인기의 절정에 달했다. 19세기에 벨기에에서는 반데 벨데(Van de Velde)에 의한 커피컵과 받침을 단순한 형태로 절제된 곡선적 모티프가 나타났다. 또 프랑스에서는 파리파의 E. 콜론나가 절제된 아름다운 선의 유희 장식 문양을 도자기에 나타내었고, 독일에서는 유리우스 샤 포겔(Julius Schar vogel 1854-1938) 네덜란드에서는 T.코렌프란딜과 윌리엄.C브르와(William C. Brouwer1877-1933)등이 활약했다. 덴마크에서는 코펜하겐 왕립자기공장(1779년에 설립)의 T. 빈테스빌과 아놀드 크록(Arnold Krog,1856-1931)등이, 필란드에서는 영국인 A. W 핀치(A. w. Finch,1850-1930)가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 외에 덴마크의 빈다르 도자기 제작소(1851년에 설립), 스웨덴의 구스타프 베르그 도자기공장, 레르스 스트란드 도자기 공방 등

2) 와카미야 노부하루 저/김학성,배정순 공역,현대디자인사,조형사,1998,p.47

1) 정시화,산업디자인 150년,미진사,1991,p.75

에서도 아름다운 제품이 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빈공방에서는 D. 팻베를 들 수 있다.

2.2. 아르누보의 분류

2-2-1. 곡선적 아르누보

아르누보 양식은 자연물의 유기적 형태로부터 모티브를 찾아 이것을 양식화하여 장식미술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 양식적인 면에서는 비대칭적이고, 행동적이어서 파리의 장식 미술에 비하면 아주 새로웠을지는 모르나, 과거의 장식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양식 탐색과 혁신을 통해서 미술을 모든 생활에 실용화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치스럽고 환상적이며, 여성적이고 심지어는 쾌락적이기까지 한 곡선적 과잉장식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벨기에 사람들은 아르누보를 Paling Stil(뺨장어 양식)이라고 불렀고 독일 사람들은 Schnorkel Stil(국수 양식) 또는 Bandwurm Stil(촌충 양식)이라고도 불렀다.³⁾

2-2-2. 직선적 아르누보

기하학적 모티브 특히, 사각형은 1898년 초 메킨토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자세는 순수하게 장식적이었으며 요세프 호프만(Josef Hoffmann)이 가구디자인에 이것을 진보시켰고 직선적인 디자인이 철저하게 적용, 통합되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비엔나 분리파가 직선적 아르누보의 대표적이었으며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겸 디자이너인 오토 바그너(Otto Wagner)와 비엔나의 미술 아카데미 출신의 요세프 마리아 올브리히(Josef Maria Olbrich)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등이 주축이 되어 1891년에 창립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어떤 양식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생활의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1898년 제1회 분리파 창립전시회 때부터 기하학적 간결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으며, 1900년 영국의 찰스 레니 매킨토쉬(C. R. Mackintosh)가 비엔나 산업 박람회때에 스코틀랜드 관을 디자인하고 비엔나를 방문하는 등을 계기로 스코틀랜드 글래고파의 직선적인 경향이 비엔나 분리파의 미술가, 공예가,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⁴⁾

3. 아르누보 도자기의 조형적 분석

3-1. 형태

빅토르 호르타(Victor Horta)가 건축한 반 에트벨데(Van Etevelde) 저택을 위해 디자인한 해바라기형 전등이나,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의 식물형태에 유사한 길옆의 돌기 등이나 특히 Casa Mila(1906-1910)의 굽이치는 파도 같은 물결의 선과 베란다를 장식하는 해조류 모양의 철제물 등은 생태학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 헤어만 오브리스트(Hermann Obrist)의 수놓은 벽걸이 자수 'Peitschenhieb'(채찍질), 1895, Victor Horta의 브뤼셀의 오르타 저택(1890)의 철제 양식에서는 곡선적 형태가 잘 표현되어 있다. 아르누보는 형, 선, 색의 새 조형 언어를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상징주의 형태와 패턴의 미학을 받아들인 점에서도 혁명적이었을 뿐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연상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3) 앤 패러비/유근준 역, 디자인 역사, 청우, 1983, p.59
4)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p.78

위하여 그 당시의 디자이너들은 이집트, 고딕 및 그 밖의 식물과 동물 및 상징등을 도입하여 특정한 관념을 대비하게 하였다. 아르누보는 물체의 기능이 그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미학을 포용한 점에서도 혁명적이었고 복고주의적, 연상적 우미 양식의 미학을 타파하고 미래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하학적인 형태와 직선 또는 곡선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아르누보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아르누보 도자기의 자세한 특징은 3, 4번에서 다루기로 한다. 아르누보 도자기는 대부분이 생활 필수품으로 커피 주전자, 접, 접시, 화병, 타일 그리고 장식용 형상 등이 있다.

3-2. 색채

장식용 화병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식물성 모티브의 꽃과 줄기를 자연 그대로의 색채를 응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대담하고 강렬한 색으로 곡선이나 직선을 표현한 것도 있었다. 접시나 그릇 등의 식기 셋트에서는 정돈되고 단순화된 식물성 모티브에 대담하게 코발트 청색 등이 주로 사용되어 추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값진 자기류에는 부를 상징하는 금색, 은색으로 지나치게 상회 처리되어 사용자의 지위 등을 상징하는 symbol로도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타일 등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추상적인 문양에 녹색, 빨강색 등이 어울려 미묘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아르누보 도자기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색채 분위기는 몹시나 과장되고 과잉으로 치장된 분위기이다. 아르누보 스타일이 응용된 현대 도자기의 색채는 문양의 곡선에 따라서 우아하게 표현되었으며 과거 아르누보 색상의 형태에 대하여 압도적인 색채 경향에 비하면 형태를 보조하는 식의 색채로서 조화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다.

3-3. 소재

아르누보 양식의 곡선은 대부분 식물의 덩굴, 잎, 줄기, 꽃, 나무 즉 담쟁이 덩굴, 백합, 수선화, 단풍나무 등과 페리컨, 잠자리, 백조, 학, 뱀, 공작의 동물로서 상징적, 환상적으로 표현되었다. 오스트리아의 공예가였던 요세프 호프만, 콜로만 모저 등은 일본 목판화의 애호가로서 그들의 작품에 일본적인 요소를 응용하기도 했다. 1862년 런던에서 개최된 산업 제품 전에는 일본의 미술과 공예가 선을 보여 그 영향이 유럽에 파급되어 19세기에 일본의 미술과 공예는 서방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외의 소재로는 켈트의 필사본(뒤잉킨 띠무늬)이 직선형 아르누보의 근원이었으며, 켈트에서 유래된 리본 패턴을 그린 맥킨토쉬의 포스터에서 나타난다. 역시 일본 공예품이나 격자 무늬는 맥킨토쉬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3-4. 아르누보 도자기

그림 1, 2

화병, 핀란드 아라비아 자기회사의 유명한 아트 디렉터 투르 우베르의 작품, 1895년, 전형적인 식물모양의 모티브와 인물로 처리된 화병, 잎은 파랑색, 꽃은 노랑색 그외의 추상적 형태는 검은 테로 처리하여 추상적인 감각을 고조 시켰다. 과장된 양식은 화병의 기능을 무시하고 그 형태를 거의 알아볼수 없도록 했다.

그림 3,

리스터 식기화병, Hermann A. Kaehler, 덴마크, 1897, H; 32cm, 자연

의 식물잎과 열매로 장식되었다. 넘치는 패턴은 화병 전체를 메우고 있다.

그림4

Gottfried Rode, 자기, 화회장식, 코펜하겐, 1898, S자로 구부러진 형태와 문양의 연결고리의 곡선이 특징적이다.

그림5

Herrmann Grodl, Nymphenburg자기회사, 뮌헨1899, 생선그릇Set, 직경:23.5cm, 나무가지, 생선, 곤충 등의 모티브를 사용했고 뚜껑있는 손잡이는 생선머리 모양의 부조로 장식되었고 배경은 녹색, 나무가지는 밤색으로 처리되었다. 그릇 전체가 문양으로 메꾸어져서 팽만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6

Korad Hentschel, 마이슨(Meissen)자기회사, 'Krokus'(사프란), 1896, 자라나는 식물을 연상하는 선들을 형태에 세로로 부여했다.

그림7

도기화병, 난초를 파랑, 초록, 노랑색으로 그렸다. Figlioli Giuseppe Cantagalli, 플로렌스(Florenz), 1899, H; 30.5cm, 난초를 추상적으로 표현했으며 줄기를 과장시켜 길게 구부러진 선으로 표현했다.

그림8

꽃병, Max Laeuger, 1900, 긴 몸통에 좁은 입구의 화병으로 전반적으로 녹색이며 아래쪽에는 부분적으로 검푸른 색이며 붉은 반색과 푸른색의 꽃을 가는 선으로 표현했다. H; 31.9cm, 도기, 산화소성, 붉은 점토, 물레성형, 화장토에 안료를 섞어서 그림을 그렸다.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그림9

인물 도자기 접시, Max Laeuger, 1897, 푸른색 배경에 녹색 잎을 엮어서 두른 여인의 옆얼굴, W; 42.5cm, 도기, 산화소성, 화장토에 안료를 섞어서 그림을 그렸다. 옆얼굴의 윤곽선이나 머리카락, 식물 잎 머리 테두리를 곡선으로서 표현했다.

그림10

꽃병, Max Laeuger, 1900, 둥근 몸통에 입구가 짧은 화병, 낮은 굽, 흰 배경으로 잎 사이에 앉아서 만도린을 켜고 있는 소녀를 그렸다. 광택이 나고 투명하며 백색 화장토, 물레성형, 산화 코발트, 등, 망간 등으로 그린 후 알칼리 유약으로 시유, H; 17cm, W; 17.5cm, 나뭇잎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11

Peter Behrens, 석기 접시, 뮌헨, 1898, Villeroy & Boch, Mettlach, W; 26cm, 청색의 곡선무늬와 곡선의 형태가 잘 조화된다.

그림12

Richard Rimerschmid, 석기 컵과 주석 뚜껑, 뮌헨, 1900, Villeroy & Boch, Mettlach, H; 16.5cm, 컵과 손잡이 그리고 뚜껑사이가 곡선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그림13

Scharvogel + Magnussen, 석기 용기와 주석 뚜껑, 뮌헨, 1900, H; 35cm, 뚜껑과 그릇 그리고 손잡이가 곡선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금속(주석)인데도 불구하고 곡선으로 된 부분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림14

도기화병, 착색된 화장토로 아르누보 특징적인 선을 그렸다. Minton, Stoke-on-Trent, H; 13.5cm, Leon F.Solon과 J.W.Wadsworth에 의하여 만들어 졌으며 20세기초 영국아르누보 도자기의 대표적인 것이다. 색 화장토를 이용하여 아르누보의 특징적인 곡선을 매우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그림15

흐르는 유약의 석기화병, Julius Schar Vogel, 뮌헨, 1900, H; 10.8cm, Schar Vogel은 Mettlach의 Villeroy & Boch도자기 회사에서 일했으며 1906년에는 독일 담슈타트(Darmstadt)의 대공작의 자기회사에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양쪽에 달린 손잡이 형태와 흐르는 석기 유약의 재질

같은 아르누보의 상징성을 더욱 고조 시켜준다.

그림16

Henry Van de Velde, 마이슨(Meissen)자기회사, W; 27cm, 섬세하고 반복되는 금색의 선은 식물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고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그림17

미국 오하이오(Ohio)의 신시내티(Cincinnati)의 Rookwood공방에서 제작, 색 화장토로 자연색 그대로 푸른색 바탕에 그림 그린 후 시유했으며 1900년에 파리 박람회에 전시되었고 아이리스 꽃 모티브를 사실적으로 과장해서 묘사했다.

그림18

출추는 여인, 1회 소성한 자기, Sevres 자기회사를 위하여 Agathon Leonard가 만들었다. H; 31.5cm, 식탁의 장식을 위하여 1900년에 파리 박람회 때 만들어진 것이며 곡선이 곧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

그림19

꽃으로 장식하고 노랑색 유약으로 시유한 자기화병, Sevres 자기회사, 줄기의 선을 과장하여 강조한 장식이며 구부러진 형태에 어울리도록 곡선으로 처리 하였다.

그림20

아르누보 도자기, Alfwallander, 1900, Roerstrand 자기회사, 화병 입구는 꽃으로 부조형식으로 장식되어 패턴인 동시에 형태로서 표현 되었다.

그림21

민트 상아의 타일, 1900, 켈트족 필사본의 뒤엉킨 띠무늬는 종종 한상적인 동물과 새우모양으로 변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22

민트의 타일, 1900, 주로 양식화된 꽃 모양의 모티프로 일관하며 꽃 머리 부분은 하트모양으로 변형되고 있다.

그림23

아르누보 양식의 화병, 세브르, 1905년, H; 24cm, 크리스탈 유약으로 시유, 형태는 물론 크리스탈 유약 자체에 아르누보 경향의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림24

아르누보 양식의 화병, 리모주, 1900년, 굽을 길게 하여 반복되는 곡선으로 장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르누보의 특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그림25

Peter Behrens, 자기 셋트는 페터 베렌스가 자신의 집 주방을 위하여 디자인 한 후 Weiden 자기회사에서 생산했다. 큰 접시W; 25cm, 연결된 덩굴의 선 이미지가 기하학적 요소로 단순화되어 형태와 조화를 이룬다.

그림26

Friesland 도자기 회사에서 지금도 생산되는 1900년대의 아르누보 스타일의 도자기로 단순화되어 서로 연결된 선이 특징적이다.

그림27

다각의 낮은 자기 접시, Peter Behrens Design, 1901, W; 32.5cm, 페터 베렌스가 새로운 예술적인 원칙을 가지고 디자인 한 작품이다. 복잡하던 양식이 단순화 되었으며 현대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림28

아르누보 화병, 1900, 형태 자체에 아르누보의 곡선적인 특징을 부여하였고 곡선의 패턴은 형태에 잘 적응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림29

Richard Rimerschmid, 석기, 1902, H; 22cm, 비대칭의 형태에 식물적인 문양과 손잡이의 곡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다.

그림30

Juriaan Kok, 네덜란드, 1901~1903, Rojenburg, 도자기 회사, 덴하크(Den Haag), H; 21~28.5cm, 달걀색자기, 곡선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을 인용한 패턴도 조화를 이루면서 아르누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굽에서 시각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위로 가면서 원형으로 변형되고 있다.

그림31

한 쌍의 부엉이, 자기, Arnold Krog, 코펜하겐 왕립 자기회사, 1901, H; 32cm, 상임디자이너인 Arnold Krog에 의하여 손으로 성형된 작품, 동물을 모티브로 한 부드러운 선과 연속되는 패턴이 특징적이다.

그림32

Konrad Hentschel이 마이센(Meissen) 도자기 회사를 위해서 제작, 날개문양, 1901, W; 26cm, 청색의 날개문양이 합쳐서 꽃잎을 연상케하는 패턴을 이루고 있고 소스를 담는 용기의 형태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다.

그림33,34

독일의 자기회사 Fuerstenberg의 자기 Ariana Ariana형태는 1903년 독일의 Jugendstil 시대부터 Fuerstenberg 도자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각각의 선과 점들이 합쳐서 하나의 연결된 유니트를 형성하고 조화를 이룬다. 기능적인 면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잘 표현된 고전으로서 아르누보의 특징이 잘 나타난 디자인이다.

그림35

Henry Van de Velde, 석기, Weimar, 1902/04, Reinhold Mer Kelbach 공방, Hoehr-Grenzhausen, H; 21.5cm, 23.5cm, 곡선으로 연결된 손잡이는 아르누보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36

자기화병, Rozenburg 자기회사, 덴하(Den Haag), J.Jurriaan kok에 의하여 디자인되었고 J.Schellink에 의하여 문양이 그려졌다, 1903, H; 26.7cm, 네덜란드의 유겐트 스타일(Jugend stil)은 그림으로서 뿐만 아니라 형태로서 현저하게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림37

황소위에 앉은 유럽의 신부, 베를린 왕립 자기회사, H; 41cm, 자기형상, 조각가 Adolf Amberg가 1905년 왕세자의 결혼식을 위하여 디자인 한 작품으로 황소를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그림38

Josef Hoffmann, 1905, 빈(Wien), 직선적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문양이다.

그림39

커피 주전자, 'Donatello-Service', 1907년 Philipp Rosenthal이 독일 Selbe에 있는 자기회사 Rosenthal을 위해 디자인하였다, H; 19.5cm, 체리문양은 하회장식으로 처리되었다, 아르누보의 특징적인 백색의 자기로 생산되었으며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그림40

자기접시, Henry Van de Velde, 마이센(Meissen) 자기회사, 1905, W; 26.6cm, 부조형태의 필릭거리는 국기를 표현했고 하회 장식하여 시유하고 금으로 상회처리했다.

그림41

Michael Powolny, 'Herbst'(가을), 'Fruehling'(봄), 빈(Wien), 1908, H; 38cm, 덩굴의 꽃으로서 풍요한 가을과 아름다운 봄을 잘 묘사했다.

그림42

Rudolf Hentschel이 마이센 (Meissen) 자기회사를 위해서 제작, 아니카 문양, 1906, W; 25cm, 청색의 연결된 잎 문양과 뚜껑, 손잡이의 형태가 아르누보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림43

달팽이 위에 앉아있는 소년, 흑백 마요리카(Majolika), 1910, 빈 공방의 Michael powolny에 의해 제작, Powolny는 도기로 생동감있는 어린이 형상을 만드는 예술가로 유명하다.

그림44

도기접시, Max Laeuger, 어두운 밤색의 광택유, 가장자리는 검은색, 검은 가지에 노랑색 계통의 잎을 그렸다. W; 24.8cm, 붉은 점토, 물

레성형, 색 화장토로 그림 그렸고 납유약 사용, 산화소성, 덩굴선 안의 잎 모양들은 유니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45

그림으로 장식된 원통형의 자기화병, Serapis-Fayence, Karl Klaus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Ernst Wahliss에 의해 제작되었음, H; 18.4cm, 1911년 세계순환박람회에 출품, 연결된 곡선은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46

자기커피 세트, 빈(Wien)의 Augarten공장을 위하여 Josef Hoffmann이 디자인함, 1928, Josef Hoffmann은 여러 해 동안 현대적인 오스트리아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굽은 선의 문양이 형태에 따라 연결되었다.

그림47

접시, 마이클 카듀(Michael Cardew), 1938, 연결된 곡선이 접시 형태에 잘 적용되었다.

그림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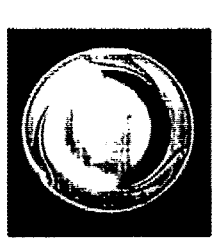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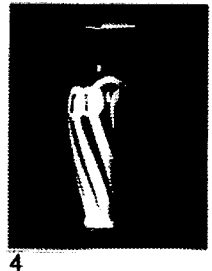
독일 Rosenthal Studio-lineie, 조개류의 생태학적인 반복된 곡선으로 이루어진 현대적 감각을 지닌 화병으로 녹색 유약으로 시유 되었으며 유약의 두께에 따라 색채의 강약감이 표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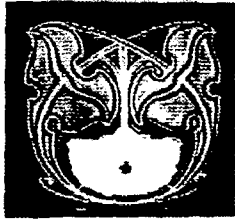
그림49

'Asimmetria'(스웨덴), Bjorn Winblad, 우리 시대의 오리지널로서 불리 어지고 있다. Bjorn Winblad는 스웨덴의 디자이너로서 동경에서 뉴욕까지 그 이름이 유명하다. 그의 특이한 아이디어는 두 개의 원으로서 비대칭의 용기를 구상한 것으로 디자이너 자신은 '현대적인 굽이 침'이라고 강조한다.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장식으로 식물의 유기적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아르누보 시초의 비대칭을 연상하게 한다.

그림50

독일 Goebel 도자기 회사, Haus Welling, 식사를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의 분위기가 감도는 패턴으로 'Etoile'의 양각은 여기에서 금 선과 보라색 선으로 특별히 강조되었다. Designer Hanns Welling이 'Etoiles'를 디자인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요구되었으며 몇 년간의 미식가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지나칠 수 없는 5각의 우아한 선은 디자이너 스스로가 'Vegetativ'(식물성의)라고 이름지었다. Etoiles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욕구도 생각한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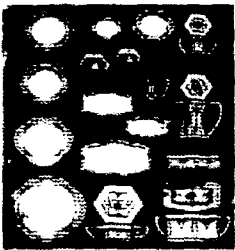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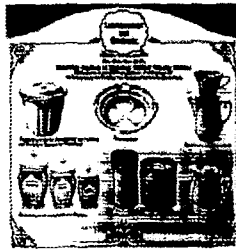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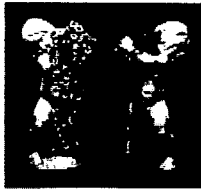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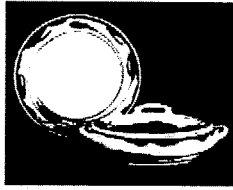
3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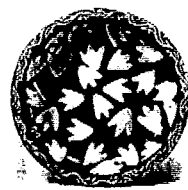
41



4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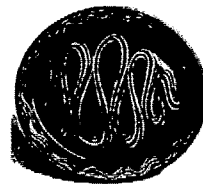
44



45



46



47



48



49



50



51

이 모든 도판을 종합해보면 현대에 와서 아르누보 양식이 사용된 도자기 형태의 특징들은 주목할만 하며 이시대 예술의 흐름에 잘 적용되고 있다. 오직 아르누보 양식 한 가지만이 접목된 것이 아니며 모더니즘에 합류되어 지극히 기능적인 면에서만 제작된 도자기를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었다. 기하학적 모양의 도자기에 직선적,곡선적 패턴으로서는 물론 기하학적 형태가 비대칭을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디자인의 역사를 보면 장식의 심리적 가치를 부흥하고자하는 열망은 곧 과거의 양식을 부흥하는 경향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60년대의 디자인에서 나타난 복고주의 디자인은 아르누보 양식을 다시 유행으로 만들었으며 이전의 딱딱하고,진지하며,엄격하고 심지어는 금속주의적인 모더니즘 디자인이 주는 강박관념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현대도자기는 아르누보의 복고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도예가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양식을 절충하고, 개작하여 다시 재구성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합류되었다.

4. 결 론

‘전통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멈추어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가는 새로운 것이며 계속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여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해 간다.’고 미국의 사회학자 에드워드 실스(Edward Shils)가 그의 저서 전통(Tradition)에서 저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문화는 다시 화합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아르누보 도자기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 도자기에 응용 또는 잘 적합된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또 다른 창작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아르누보의 일반적인 이론과 조형적인 특성을 조사하였고 아르누보요소가 적용된 1895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도자기에 과거의 과장되고 넘쳐흐르는 듯한 형태와 패턴의 아르누보요소를 지극히 절제된 단위로 사용한 경우에 그 효과가 주는 이미지는 독창적이며 세련된 느낌을 준다. 기능 면에서도 과장된 형태보다는 적절한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둘째, 색채에 있어서는 대부분 강렬한 색을 사용한 과거의 경우보다는 도자기의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절제된 소수의 색을 사용하여 조형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셋째, 소재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성공적 사례로서 Rosenthal의 생활도자기‘Asimmetria’(스웨덴)는 아르누보의 배경을 잘 표출시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능숙한 디자인 감각을 형태와 색채로서 잘 나타내고 있다. 고전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동시에 두 개의 원이 이루는 비대칭은 이 작품의 포인트이며 고급스러우면서도 익살스러운 유머감각까지 안겨준다. 과거의 아르누보근원도 비대칭에서 이루어졌다. 이 제품에서는 문양으로 그려진 곡선의 모양은 다시 형태에 나타나면서 강조된다. 결과로 금색 곡선의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table ware의 분위기는 새롭고 독창적인 이미지는 물론 고부가 가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오랜 시일이 지나는 동안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듬어져 내려온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도자기 디자인에 효과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Deutsche Keramik des 20. Jahrhunderts, Hetjens-Museum Duesseldorf, 1978
2.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3. 와카미야 노브하루저/김학성, 배정순공역, 현대 디자인사, 조형사, 1998
4. 앤 패러비/유근준 옮김, 디자인 역사, 도서출판 청우, 1983
5. Keramik, Ebeling Verlag Wiesbaden, 1980
6. 황종래, 유성웅 편저, 세계 도자사, 한국 색채 문화사, 1994
7. Klaus Juergen Sembach, Jugend Stil, Taschen, 1990
8. 현대 디자인의 전개, 페니스 파크, 미진사, 1994